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24	05. 01	05. 08
대 표 기 도	장래황 성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장래황 성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4월 축복인사 -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성도 간에)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걱정하지마!(자신에게)

1. 부활주일 -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 예배 후 친교 - 식사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섬겨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이사야서 성경 읽기에 동참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역라마단 운동 - 라마단 기간(4월2일~5월1일) 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부활주일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161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16 : 24 - 28(신p28) 김효종 집사
(Matthäus 16:24-28)
- 성찬예식 Abendmahl 유월절 어린양의 피 담임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성도가 귀한 이유!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장래환 성도

† 기도제목

1.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 위에 굳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역라마단 기도를 통해 이슬람 형제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부활생명의 배터리

우리는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는 것처럼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민해도 낙심에 빠져 지내지 않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한때 낙심하고 근심할 수 있고, 하루 이틀 낙심하고 온밤을 지새우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낙심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낙심의 골짜기에서 빠져 나옵니다. 낙심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꺾박을 받아도 버틴 바 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지거나 압도되지 않고 결국 고난을 이기는 것은 부활 생명의 배터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십자가 / 故 김웅국 목사

* 예수의 처형은 인간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 故 Warren Wiersbe(1929 ~ 2019) -